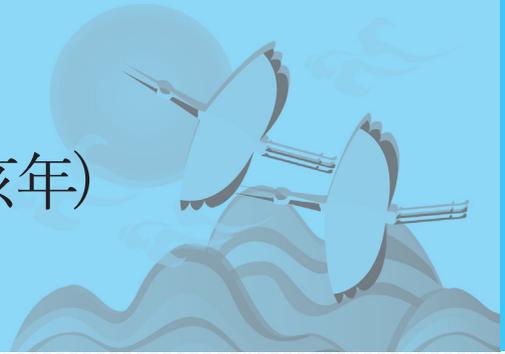


# 무사고, 무재해를 이어나가는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되기를....



제45호 자랑스런 안전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정 연 수 차장

어느덧 2007년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매월 새로운 안전관계자 및 근로자분들과 많은 이야기와 그 분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게된 2006년이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교육과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사투리가 귀에 익지 않아 질문에도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았던 기억들, 안전인들의 생각과 미래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차를 놓친 일, 강의 시간에 늦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저에게 검게 그을린 얼굴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따뜻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 참으로 소중한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전인은 야구의 투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잘하면 0점을 받는 일이라 다른 일보다 더 심적 부담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로자분들을 대할 때 내일이 오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대하듯 소중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좀 더 즐겁고 신바람 나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보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안전인이 아닌가 합니다. 최 일선에서 근로자분들의 안전, 회사의 안전, 나아가 모든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면서 묵묵히 어둠에서 빛을 내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자부심과 철학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는 정해년 새해가 되기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인 만큼 어느 해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안전이라면 항상 목표를 삼고 있는 무 손실, 무 사고, 무 질병을 향해서 쉽 없이 달려왔으나 되돌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안전활동을 재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 즈음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명감과 철학이 없으면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의 비중이 큰 만큼 가장 중요한 안전부분이 소홀해 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전인들은 소신껏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험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며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수 많은 안전인들이 땀 흘린 노력이 있기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안전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철학을 가지고 더욱더 힘찬 발걸음으로 2007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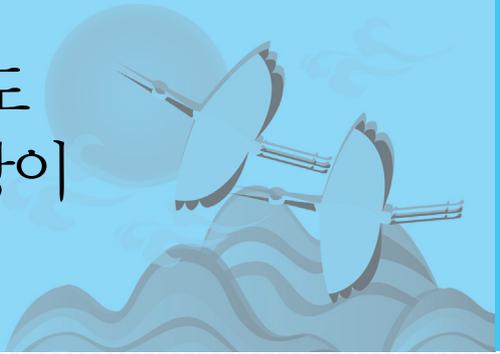


제47호 자랑스런 안전인  
유한킴벌리(김천공장)

**이 흥 태** 실장



#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이룩되기를 기원하며...



제 51호 자랑스런 안전인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소

정 현 응 과장

우리발전소가 민영화되어 안전관리를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무사고, 무재해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 안전을 선택했던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결정이었구나! 그리고 안전에서 보람을 찾아보자!”고 가슴 들떴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안전관리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더욱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의 위험설비를 적기에 예방정비보수하여 설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선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인적사고를 제로화시키는 것이 금년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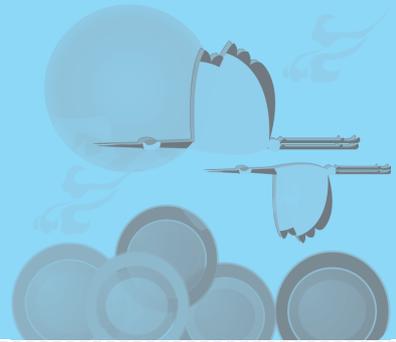
안전은 우리의 경험으로 얻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안전사고를 방지하려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전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빨리 파악하여 우리 전 직원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가 난다”고...

“당신이 보낸 오늘은 어제 안전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보기를 갈망한 내일이다”라고...

2007년 정해년 새해, 모든 근로자분들이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 안전불감증이 사라지고 무재해가 이룩되는 정해년(丁亥年)되기를...



2007년 정해년 희망찬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정해년 한해에도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무재해를 이루시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도 2006년은 참으로 뜻깊고 영광된 한해였습니다.

무재해 11배수 달성 및 '06년 전국 산재예방 유공자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사장님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님으로부터 수상을 받게된 것은 회사의 영광이며,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며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무재해 12배수 달성 및 국제인증 OHSAS 18001 안전인증취득 등 굵직한 안전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장내 안전보건경영체제(SMS) 정착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전직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안전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한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및 습관을 근절시키고, 불안전 시설물은 개선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원이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뿌리깊은 안전불감증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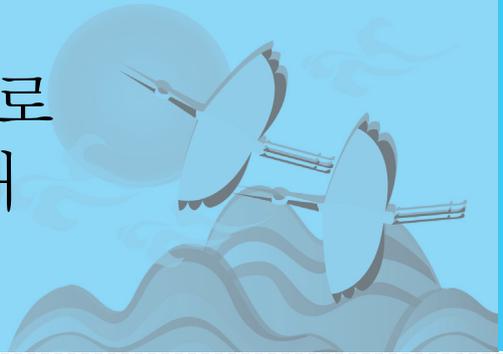
타인의 안전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동료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안전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해년 한해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52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세영기업

박 성 철 대리

# 무사고, 무질병, 무화재로 이어가는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를...



어느덧 2007년 정해년(丁亥年)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뜻 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은 저에게 있어 참으로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업무를 시작한지 18년 만에 꿈에나 그리던 무재해 달성 10배수(3,080일)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된 한해가 되었습니다.

매월 안전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교육하고 그룹토의, 정비, 위험관찰서 작성, 제안 등 제 규정을 직접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하나씩 일구워 온 지난 8년 6개월이란 세월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도 심적인 부담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정말 안전이라는 업무는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삼아 나보다 근로자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회사의 안전, 나아가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산업현장의 안전인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런 안전인입니다.

2007년 한 해에도 재해 없는 공장을 실현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행복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일터에서 작은 사고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54호 자랑스런 안전인  
(주)한화 구미공장

이 덕 화 과장

#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안전한 사회구현을 이룩하는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되기를...

새로운 소망과 각오로 서로를 격려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모습들이 한결 활기차게 느껴지는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슬기롭게 넘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11월 안전기술의 “자랑스런 안전인” 으로 선정되어 주위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았을 때 안전인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도 소중한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기억도 있지만 안전사고 등 안타까운 소식들을 매스컴을 통하여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200년 전에 한 말이 우리들의 모습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쓰기는 하지만 역사로부터 배우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아 동일한 재해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스스로 피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과 비가 있어야 하고, 나비와 벌의 도움이 있어야만 꽃을 필 수 있듯이 지속적인 무재해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실천하려는 자신의 의지와 회사의 과감한 투자와 가정에서의 화목 등 삼박자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한 해에도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국의 안전인 여러분들을 반갑게 많이 만나 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57호 자랑스런 안전인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노희재 과장